

변호사사무실로 가는 '경찰 전관'... '전경예우' 주의보

〈경찰 출신 전관 예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경찰 수사 중요성 커져 광주서도 이직 바람 수사 영향력 행사 등 우려... 업계 "인맥 활용 위해 적극 영입할 것"

최근 광주지역 법무법인(로펌) 등 변호사사무실에서 전직 경찰관들을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 예우'에 비해 '전경 예우' (경찰 출신 전관 예우)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효과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퇴직한 경찰들의 취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 출신의 취업현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법조계에서 불던 경찰출신의 법무법인 이직 바람이 광주에서도 불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남지역에서 수사과장을 역임했던 A검경은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했다. 또 올해 초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퇴직한 경찰관도 최근 광주지역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형사사건 법률시장에선 수입액이 큰 6대 중요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출신과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 출신 전관 영입이 주류를 이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전관 영입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공무원이 신청한 취업 심사 196건 중 50건(25.5%)은 그 사유로 '로펌 취업'을 들었다. 이 중 48명이 로펌 이직을 승인 받았다. 2020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광주지역 법조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실제 변론 능력이나 현장 검사와의 소통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관으로서 모종의 활약을 할 거란 기대 심리가 반영돼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 법률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면 이들의 인기가 경찰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죄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맡게 되면서 경찰 고위직 또는 수사담당관과 인맥이 닿는 이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법무법인은 최근 변호사가 아닌 일선 퇴직 경찰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경찰의 몸값이 올라가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까지 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맡아 사건 수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 경찰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사무장 보다는 이사·고문·자문위원 등으로 취업하고 있다.

사건을 수임해오거나 경찰 수사관에게 '덕담'을 건네는 게 이들의 일이다. 또 당사자 방어권을 위한 현장 증거수집에 나서는 등 초동단계부터 실질적인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줄고 수사중결권을 갖게 된 경찰 수사 단계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무혐의 처리를 해주겠다는 홍보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A 변호사는 "앞으로는 로펌이 경찰출신 영입을 늘릴 것이다"면서 "경찰은 특히 인맥이 중요해 여러 경찰과 두루 친한 경찰 전관의 인기가 특히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퇴직경찰의 법무법인 이직이 늘자 전경예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법원의 전관예우 논란이 그렇듯 전관예우 실재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경찰 출신 예우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제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경찰 선배들이 연락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없지만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광주지역 로펌에서 최근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다"면서 "경찰예우 등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지만 로펌에서는 경찰 출신 인맥 등을 활용하기 위해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칠석동 고싸움놀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40회 정월대보름 고싸움놀이 축제에서 고싸움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수학 1등급의 힘... 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

최종 발표 땐 4~5등급도 나올 듯... 올 대입 수학 고득점자 절대 유리

올해 대학 입시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절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에 각종 입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주요대학 정시 최초 합격 점수의 특이사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시에서 국어 3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 합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학생은 수학은 1등급을 받았고, 영어는 2등급, 탐구1 3등급, 탐구2는 2등급이었다.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과 경희대 공대(국제)에서도 수학은 1등급이지만 국어는 4등급인 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서울대 정시의 경우 대부분 과목에서 1등급을 받고, 이외 상위권 학교에서도 1~2등급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한데 올해 정시에서는 국어에서 3~4등급을 받은 학생도 합격한 점이 이례적이다.

종로학원은 "수학이 우수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며 "국어에서는 고득점을 맞아도 상위권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균관대 수학교육, 서강대 전자공학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중앙대 간호학과(자연), 경희대 간호학과(자연) 등에서 수학 1등급, 국어 3등급 합격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19학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당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 수학 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133점으로 과목 간 격차가 17점이 발생했다. 이에 지방권 소재 의대 정시에 수학 4등급을 받고도 합격하기도 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보다 수학이 어렵게 출제돼 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의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언어와 매체 기준)이며, 수학 최고점은 145점(미적분 기준)으로 11점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어뿐 아니라 탐구영역에서도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어, 탐구 불리한 점수를 수학 한 과목으로 충분히 만회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등급포기로 인한 정시 추가합격자 발표 시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서도 2023 수능 결과 상황에서는 국어 4~5등급대도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학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학교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4월 8일 초·중·고졸 검정고시

광주시교육청, 5월 9일 결과 발표

광주지역 '2023학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4월 8일 실시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5일 밝혔다.

검정고시는 오는 4월 8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5월 9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이날 13~17일 시교육청 별관 1층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지원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외국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시험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은 다음달 24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된다.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 전 시험 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도,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연120만원 지원

6월~4월 6일 신청... 청년 자립·정착 지원·증기인력난 해소

전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학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등 고불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청년 자립·정착 지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청년이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6월부터 4월 6일까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4월 중 지원 대상자 100여명을 선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매년 대상자를 선별해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 상환 후 지원' 방식으로 분기마다 개인별 대출금 상환 내역 확인 후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장광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400여 명의 지역 청년이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을 받았다"며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역시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결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